



보도자료

즉시 보도

제니비 연합, 서울에서 글로벌 회원사 회의 개최

서울, 2015 년 10 월 21 일 -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IVI:In-Vehicle Infotainment)의 개방형 플랫폼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하는 자동차 산업 연합체인 제니비 연합(GENIVI Alliance)는 10 월 21-23 일까지 전세계 150 개 회원사가 참석하는 ‘All-members Meeting(글로벌 회원사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는 자동차의 오락(entertainment)및 정보(information)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차량 내 오디오·비디오 기기들을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과 동일하게 터치나 목소리로 조종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제니비 연합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및 아시아의 중요성과, IV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아시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 자동차 산업을 아우르는 회원사들이 포진한 제니비 연합은 자동차 및 가전 제품의 개발 주기에 맞춰 개방형 표준을 개발해, 자동차 제조사들과 협력사들이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산업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니비 연합의 스티브 크럼(Steve Crumb) 전무이사는 “한국 회원사들은 자동차 데이터의 웹 어플리케이션 접근 등과 같은 필수 기능을 표준화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제니비의 성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고 말하며, 이러한 기능은 현재의 IVI 시스템뿐아니라, 미래의 커넥티드 카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혁신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회원사로는 현대자동차그룹, LG 전자, 현대 모비스 및 오비고를 포함한 13 개 기업이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적합한 IVI 기능들을 위한 기술전문그룹을 구성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제니비 기술은 주요 티어 1 협력업체들과 제니비 솔루션을 탑재한 완성차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제니비 플랫폼의 도입률을 높이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2014 년형 제네시스 약 6 만 5 천대가 LG 전자가 개발한 제니비 기반 소프트웨어를 탑재했으며, 해외에서 출시된 제네시스 약 6 만 6 천대가 제니비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

한편,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도 제니비 연합 참여와 기술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장성 자동차(Great Wall Motors)와 대만 차이나 모터 컴퍼니(China Motor Company)가 최근 연합의 새 회원사가 되었으며,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그룹(SAIC Motor)과 제일기차 그룹(FAW Group), 일본의 닛산, 혼다 등이 활동하고 있다.

###

제니비 연합 소개

제니비는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IVI)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광범위한 상용화를 추진하는 비영리 산업 연합체이다. 제니비의 활동은 다양한 유관 업종 기업들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소스를 개발, 관련 기기나 소프트웨어·콘텐츠 등이 쉽게 상호 연동되도록 하여 개발 주기와 출시 기간 단축, IVI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세계 150 개가 넘는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본부는 캘리포니아 샌 래먼에 위치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genivi.org

언론 담당 - 제니비 연합:

Craig Miner

248.840.8368

cminer@gelia.com